

도내 대학, CES 2025서 첨단 기술 선포

전북대, 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과 공동으로 전시 부스 운영... 동물 조기 암 진단 장치 등 출품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 전북권 대학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를 비롯해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LINC 3.0 사업 참여 대학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각 대학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행사에 광학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동물 조기 암 진단 장치와 저탄소 축산 지원 플랫폼인 '카우카본', AI 기반 계란 압수 구분 장치, 포터블 미세 액적 제조기기 '마이크로체인저블', 비상용 모바일 자가발전 모듈 'Linkie' 등을 출품했다.

특히 동물 조기 암 진단 장치는 CES 2025 Digital Health 부문에서 Innovation Awards(혁신상)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우석대는 중장비용 다기능 무선 컨트롤러를, 원광대는 전기차 배터리 진단 장비를, 전주대는 중금속을 결정화해 자원 순환을 돕는 기술을 각각 전시하며 전북권 대학의 연구 성과를 알렸다.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대학들의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실증하는 자리다.



전북대학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 참가, 전북권 대학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에 전북대는 지난해에 올해도 유레카파크에 다수의 기술 기반 제품을 출품하며 글로벌 기술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 겸 LINC 3.0 사

업단장은 "CES 2025를 통해 지역과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대의 기술 사업화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북대의 혁신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관은 7~10일까지 CES 2025 유레카파크 63151 부스에서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IB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IB 운영학교 교원 대상

올해 60명으로 확대... 프로그램 질 높여 교육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IB(국제 바칼로레아) 운영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IBEC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BEC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 즉 IB 교사 자격증으로 IB 본부(IBO)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북 1기 IBEC 과정은 IB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수업 및 평가 혁신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또한 IBEC 이수 교사들은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의 IB 프로그램 도입·

정착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고, 위탁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이수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IB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IBEC 과정은 수업·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IB 운영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IB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난독·경계선지능 심화연수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14일까지...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북 기초학력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취지다.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와 현장 초등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30시간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난독·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지도 전략을 담았다. 특히 난독·경계선지능 의심학생 발견 및 진단 문기관 연계 중재교육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수법도 포함됐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은 진단을 통해 초기에 발견해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소속 지역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 스타트

호원대·군산시, 지역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사업 일화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프로그램 오픈 행사와 1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프로그램은 호원대학교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군산시 교육지원과가 함께 주최하는 '군산시 K-컬쳐'의 청소년 교육의 일환이다.

오픈 행사에는 호원대학교와 군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진과 조교진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힘찬 출발을 알렸다.

행사 진행에 앞서 내외빈 소개, 축하 및 인사말,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소개(최부현 호원대 산학협력부단장)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체가 본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1회차 교육을 진행했고, 학부모들은 시설 투어 및 간담회 자리를 참여 교수진과 함께 가졌다.

호원대학교는 문화예술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노후를 기반으



호원대학교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K-스텝업: 우리는 K-팝컬스타' 교육프로그램 오픈 행사와 1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될 예정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뮤지컬은 각 분야의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된 교육 전문 팀이 군산지역의 다문화 및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중 팝컬(쥬크박스 뮤지컬)을 활용한 문화예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과정, 드론촬영과 영상 편집 등 디지털 영상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실용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 교육 프로그램 기초 3주 과정은 6일부터 24일까지 주 2회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심화 2주 과정은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 2회 3시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의 교수진과 학생 조교들이 호원대학교만의 문화예술 교육 노하우를 녹여내어 K-컬쳐 교육과정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호원대의 전문 교수진들이 학생들에게 K-컬쳐 분야의 트렌드와 뮤지컬의 기본을 강의하고,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 전공 학생 6명이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K-POP 보컬, K-POP 댄스, 영상 촬영 보조 분야에 도움을 보낸다.

총 10회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은 뮤지컬 영화 <위대한 소년>의 주제가인 'This is me' 노래, 춤 배우기를 중심으로 K-POP 댄스 및 노래 배우기 등을 통해 최종 수료식의 공연무대를 수강생들이 꾸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 외부 전문 강사들이 참여하여 댄스 챌린지 배우기, 영상 기법 및 촬영 배우기, 드론 조종법 배우기 등도 병행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원대학교의 문화예술분야의 지역공헌 활동으로서도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와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원대학교는 최근 K-한류의 열풍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용음악학부, 공연미디어학부, K-POP학부 등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한 전북 최고 문화예술 인재양성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용음악학부는 실용음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국내 최고 뮤지션들의 산실로서 알려져 있다.

공연미디어학부는 공연·방송·뮤지컬·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비롯해 공연 예술시장을 선도하는 기획·연출 등의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K-POP학부는 대중음악시장을 이해하는 전천후 인재 길러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정읍학력지원센터, 초·중학생 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학습도약 집중캠프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학력신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읍학력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및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7~9일 '학습도약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학력지원센터 파견교사와 교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집중지원하고 타로와 함께 하는 심리·정서 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했다. 이를 통해 학력 향상, 자존감 회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AI와 함께하는 문해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문해력 AI 학습시스템은 시선을 추적하여 읽기 능력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된 진단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진단된 읽기 능력의 취약점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Web Training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문해력 향상의 방안을 제시해 준다.

문해력 상담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체계적인 진단과 학습 방안을 제시해 주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해력 향상 솔루션을 제공받은 것 같다"며 학생의 문해력 향상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은 "2025년도 전북교육의 방향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만큼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빈틈없는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체계적 관리 대응"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 직무연수

총 12기로 진행...매뉴얼 활용·실습 등이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롭게 구축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학교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학교 안전교육, 사고 조사 및 보고 등으로 분리·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학생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 각급 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1,040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8~17일, 2월 10~13일까지 총 12기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매뉴얼 활용 및 실습 △학교안전계획 작성법 및 실습 △학교안전사고 사례 및 통계 분석 △학교 마약 예방 교육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는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학교 관련 자료들이 학교안전교육 계획에 자동으로 입력돼 학교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 구성원의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관 학교안전과장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안전 문화 확산

원광대 안전관리과 김동혁 과장, 교육부장관 표창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안전관리과 김동혁 과장이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혁 과장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학교 행사 시 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 안전대책 회의를 주관해 지자체·경찰·소방과 인파사고 등 각

종 위험을 예방하는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위험별, 유형별 안전 관리 대응 매뉴얼 및 조치방법을 교육하고, 공연 무대 및 부스 일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교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경각심을 제고했다.

특히 안전실천 캠퍼스 구축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본안전 수칙 준수 독려와 대학 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앞장서는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했다.

/익산=이재훈 기자